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4. 13. / (총 9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양 윤 석 조 영 대	전 화	044-202-3575 044-202-3805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과 장 담 당 자	권 도 현 이 정 겹	전 화	044-203-2321 044-203-231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용 재 조 성 훈	전 화	043-719-2051 044-719-205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과 장 담 당 자	황 영 호 김 성 일	전 화	042-481-4545 042-481-438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종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동향 및 향후 계획, ▲집단 감염 위험시설(클럽 등) 점검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종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동향 및 향후 계획, ▲집단 감염 위험시설(클럽 등) 점검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검사를 축소하고 있다는 왜곡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악의적 기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4월 16일(목) 추가적인 온라인 개학은 지난 주에 비해 3배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는 만큼, 다시 한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1 종교계 사회적 거리두기 동향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자발적인 종교행사 자제를 위하여 비대면·비접촉 종교 활동 지원을 추진해왔다.
 - 다수의 단체가 종교 집회를 자제하고 있으며, 집회를 열더라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거나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불교는 모든 대중 법회 및 템플스테이 운영을 4월 19일(일)까지 중단하였고, 천주교도 16개 중 15개 교구가 최소 4월 19일(일)까지 미사를 연기하였다.
 - 4월 초부터 진행 중인 비대면·비접촉 종교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주말까지 총 24개 종교 단체에서 승차 종교활동*을 추진하는 등 종교계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 승차 종교활동 :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참석자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 참여
- 앞으로도 종교계와의 방역 관련 소통 및 비대면·비접촉 종교 활동 지원 사업 홍보를 지속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계의 자발적 협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2 집단 감염 위험시설(클럽 등)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8일(수) 이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
- 강화된 관리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5일 동안 전국적으로 클럽 등 유흥시설 4만1476개소*를 점검하였고, 4,242개소**의 유흥시설에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 * 감성주점 84, 나이트클럽 330, 단란주점 1만3269, 유흥주점 2만7793
- ** 행정명령(누계): 4,242개소 (서울 4,236, 전북 5, 대구 1)
- 앞으로도 경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3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진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점검하였다.
- 4월 10일(금)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53만1202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였으며,
- 이 중 25만4844건(48.0%)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17만9120건(33.7%)에 대해 대출 실행이 완료되었다.
- ☐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신청 대비 보증서 발급 비율은 울산이 85.3%로 가장 높았고, 제주(69.8%), 전남(66.2%), 대전(64.4%)이 뒤를 이었다.

- 대출 실행 비율은 제주가 6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울산(59.6%), 대전(45.4%), 강원(40.9%) 순으로 조사되었다.

- < 붙임 > 1.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 홍보자료
2.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
3.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0.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자료

붙임1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 홍보자료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콜센터

☎ 문의전화 1433-1900 (수신자 부담)

@ 이메일 onlinesupport@ktoa.or.kr

팩 스 02-2015-9096

🕒 운영시간/기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4월 8일(수) ~ 5월 29일(금)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중소종교단체
(200명 이하) 대상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

※ 신청시 종교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1. 데이터 지원

실시간 동영상 촬영과 업로드 등에 따른
데이터 지원

☑ 이동통신사



☑ 지원 조건

200인 이하 종교 단체

☑ 지원 내용

종교 단체별 1회선에 한해 2개월간
영상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 지원

☑ 필요 정보

고유번호증, 휴대폰 전화번호,
이동통신사명 등

※ 개인정보는 목적에 따라사용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폐기

2. 온라인 방송 사용 안내

온라인 종교활동을 위한 단말기, 영상 채널 교육

교육 내용

1. 단말기 교육 APP 다운로드, 실행방법 등

2. 온라인 방송 채널 교육

☑ 플랫폼

카카오TV 라이브, 네이버밴드 라이브

☑ 교육 내용

영상촬영 업로드, 시청 방법 등

카카오TV 라이브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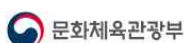
네이버밴드 라이브 예시



3. 현장지원



1차적으로 콜센터를 통한 온라인
종교활동 상담 후 기술지원 필요
여부에 따라 현장방문 지원 안내



붙임2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집행 현황(4.10일 0시 기준)

□ 전국 집행 실적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4.9일까지 총 531,202건*의 보증신청을 접수, 이중 48.0%인 254,844건의 보증서를 발급했고, 33.7%인 179,120건의 대출 실행

*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특례보증, 지방자치단체 특례보증, 그 외 일반보증을 모두 포함한 수치

* 신청 건수는 재단별 접수 건수와 접수 대기 건수를 합한 수치임

□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실적 비교 (~4.10일 0시 누계)

지역신보 보증지원현황		
구분	보증서 발행	대출실행
총계	48.0%	33.7%
강원	55.7%	40.9%
경기	49.5%	36.7%
경남	33.7%	27.3%
경북	58.1%	27.8%
광주	47.9%	31.2%
대구	42.8%	26.9%
대전	64.4%	45.4%
부산	46.7%	39.3%
서울	36.7%	27.3%
울산	85.3%	59.6%
인천	50.7%	38.7%
전남	66.2%	38.2%
전북	44.0%	34.9%
제주	69.8%	61.3%
충남	48.0%	30.4%
충북	60.6%	40.7%

제임3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상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중요일부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30면 사설/칼럼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정부의 감염병 유행 차단 실패와 종교 집단 대규모 감염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의료진 덕분이다. 특히 감염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간호사의 헌신적 노력이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7%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오관을 거둬들인 정부가 그나마 사태를 진정시킨 의료진에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의 악장을 무너뜨리는 일을 연거푸 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을 운운하며 자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려 나라를 구한 이들에게 고마움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의 수당 논란은 의외적으로 허탈함을 안겼다. 정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드림)부터 스톱 진료소(스톱)까지 사서하는 의료진에는 위한 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를 대만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판사가 하더라도 임시 선별진료소(드림)에서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방문자의 목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라. '발로 발목질'은 말이니 나오겠다.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이 집안 의료진과 노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박남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보호복 등 보호 물품이 부족하다는 의견기관에 **호소에** “쓸모가 없다”고 쓰고요 해서 그렇다”고 밝혔다. 그 시각 일부의 시는 보호복이 없어 대안 수를 가운을 입기도 했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순해상선 치료소를 하겠다고 시를 통보했었다. 폐렴으로 숨진 1차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반응이 한 차례 더 온 일곱 차례는 음성이 나왔다. 검사한 결과 잘못됐다며 병원 직원 5명 해소를 지시했다. 철저한 일과도 있었다. 도무지 지는 못할만큼 잠을 깨려 들어사야 되겠다. 그 대환의사들은 “나서 달라고 드는 모습도”가 시장이 좋아지자 뒤에 달려나와 드는 모습이 입건관과 비명장난을 치며 병을 씌운 무능한 조건 관리를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상황에서 보듯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이다. 이미 120여 명이 감염됐지만 딱딱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경의를 표하고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진헌·아산에 격리된 교민들이 받았던 ‘청와대 도시락’과 질병관리본부에 간 ‘청와대 밥차’가 의료진에 담겼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님

-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 → 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 이후 **일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안국경제

이학영 칼럼



상임논설고문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봉’
국민은 ‘해외출입 간헐자택’ 비상

표 10-9. 임의, 임의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TABLE IV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

하기에도 힘입고 의뢰자로 지칭다." 백영권 이사장은 "다른 나라에는 이렇지 않을 막대한 상호주의에 일각에 급지해 한국, 외국인이 지갑안의 일부의 국화로 들어오라고 한다"는 말로, 예외의 또 다른 기본인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를 정부와 여러 민간인 의사 앞에서 듣게 된 것, 이게 한국 외교의 현실이다.

경제 발전 정도, 교육, 코스타리카 개발은행은 다른 나라들보다 양자 관계를 지니는 나라가 적다. 그러나 경제, 사회적, 문화적 발전 정도가 낮아져 양자 관계를 맺고 있는 곳도 적다. 해외 대학교(대학) 졸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코스타리카는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해외 유망이 "코스타 3.0" 전략의 뇌髓이 되는 것이라 하는 주장이 있다. 코스타리카 개발은행은 국가의 경제, 사회적, 문화적 발전 정도가 낮아져 양자 관계를 맺고 있는 곳도 적다. 해외 대학교(대학) 졸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코스타리카는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해외 유망이 "코스타 3.0" 전략의 뇌髓이 되는 것이라 하는 주장이 있다.

한 미국에 대해서까지 일국적임을 조치를 하기로 한 이유다.

실활이 이전에도 한국 정부만 일국적 한 조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갈릴릴 차 단' 요구가 빚발치자 동원한 조치가 '모 든 해외 한국자 2주간 의무귀국에 결단'

한국의 영구적 거주민이 아닌 한민족이 아닌 영국인과 독일인이 합친 만민을 받은 상태에서 이곳을 들리고 있는 것으로 외국 영권에서도 허용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을 위한 외교,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묻게 하는 일이 너무나 벌어지고 있다.

newsfromusa.com

[illegible]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
 (한국경제, 4.1)

-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붙임4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5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